

여성·정치·환경 '화합' 추구하는 실무형 지도자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⑫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68)에게 으레 따라붙는 수식어는 '실무자형 여성지도자'. 여성운동가, 정치인, 환경운동가 등 그의 '이력서'는 다채롭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수석부회장으로 있다가 평민당의 부총재로 정계에 진출한 박 소장은 당시 여성정치가의 새모형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전까지와는 달리 조직적인 여성지지 기반을 가진 여성지도자, 운동력있는 '일하는 여성정치인'이었다는 것.

박 소장은 정치에 참여하자마자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결실을 보았다. 박 소장은 "한 곳에 몰두하면 그것밖에 모르고,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고" 자신을 설명한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박 소장은 원내활동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정당정치를 잘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정당에 여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순화시키고, 생활과 직결되는 정치, 생태계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성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진출해 감자 위주의 정치구조와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소장의 활동이 그리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거명될 때는 언론이 근거도 없이 비리인간으로 만들어 버려 정말 화가 났단다. 다른 사람이 10년이나 살던 집에 이사갔을 뿐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 박 소장은 여성으로서 정계활동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다른 여성이 하겠다고 하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YWCA 활동으로 여성운동 첫발

박영숙 소장의 여성운동은 대학시절 YWCA의 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대학내 YWCA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1950년대인 당시만 해도 여성운동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YWCA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여성운동으로 이어진 거죠. 대학시절엔 YWCA에서 활동하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학교에 남으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그전에 이미 YWCA 고문으로 있던 박에스터 선생과 대학공부를 마치면 함께 일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터였다. 대학 공부를 마치고 청년부 간사를 거쳐, YWCA에서 유급총무로는 이희호 여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일하게 되었다.

YWCA 활동은 아이출산 후 육아를 위해 실무직에서 떠나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집에만 2년 있었는데, 아이가 서너 살 되니까 내가 몸살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YWCA가 회원으로 있던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처장을 구하고 있어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잠시 떠나 있던 여성운동에 복귀하게 됐지요."

이전에 연로했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박 소장은 여협의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새롭게 조직의 체계를 잡고자 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라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대신, 자신의 정책에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었다. 여성운동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가장 큰 고충은 정부의 그런 지지성명을 어떻게 하면 발표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것이었다고 박 소장은 말한다.

여협 활동 이후, 박 소장은 76년 민주신화자인 남편 안병무 박사가 '3·1민주구국선언서'로 투옥된 것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창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과정에 편파적인 보도를 내보내던 KBS에 대해 시청료거부운동을 추진해 단결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소장은 국회의원 활동중 별 관심을 갖지 않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국회와 행정부에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는다. 박 소장의 환경운동은 정계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시민 참여하는 환경운동 펼쳐려

"70년대 정부에서 인구정책에 힘을 쓸 때 인구문제와 관련해 학교 어머니회에서 환경문제 강연을 하는 등 그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 '생명문화창조운동'이라는 것으로 생명운동을 시작했고, 처음 글로 환경운동을 주장했던 것은 80년도 YWCA 문건에서였어요."

박 소장은 국회의원시절인 90년에 환경문제 상담을 위한 '녹색의 전화'를 개설해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최초로 만들기도 했다. 국회를 떠난 후 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환경정책은 형식적인 면이 많고 지구환경보전 차원보다는 공해방지 차원이 더 많다는 게 박 소장의 생각이다. 그래서 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해, 최근엔 주로 환경행정에 의회와 시민의 참여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가령 팔당문제가 터졌을 때 수질개선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 반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참여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박 소장의 환경운동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책을 평가하고 입안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영숙 소장은 37세 12월 29일, 딱 3일 모자란 38세에 결혼을 했다. 남편 안병무 박사와는 나이가 10년 차



▲ 요즘 박 소장은 이희호 여사의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 사업도 돌보느라 바쁘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는 달리 여성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 여사가 뭔가 다른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박 소장은 말한다.
▶ 평민당의 부총재로 정계에 진출한 박 소장은 당시 조직적인 여성지지 기반을 가진 여성지도자, 운동력있는 '일하는 여성정치인'으로 여성정치가의 새 모형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다.

안병무 박사는 원래 독신주의자로 알려졌고, 본인도 결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위암수술을 하고 미취에서 갓 어머니 소원대로 오랜 독신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결심한 후 박영숙 소장에게 청혼을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을 했다는 사람의 프로포즈가 바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었어요. 정말 멋 없었지요. 겨우 이유가 그거냐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부부가 되어 30년 가까이 함께 살게 되었다. 사실 그들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한다.

박 소장이 안 박사를 알게 된 건 대학시절 전후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날 당시 안 박사가 만든 '하성'이라는 잡지를 통해서였다. 안 박사는 당시 젊은 지성인



▲ 현재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는 환경행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박 소장은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할 수 있게 영국 유학을 적극 권유하며 외조했던 남편 안 박사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환경운동을 하며 살고 싶다는 바람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박 소장 또한 그의 이론에 경도돼 있었다고 하지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 YWCA에서 활동할 때 어찌된 일인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했고, 안 박사 역시 독일 유학시절부터 박 소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결혼권유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YWCA 총무시절 전국대회를 열면서 우연히 안 박사를 새벽 성서지도와 주제강연자로 선정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대화가 끝날 즈음 안 박사가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었다.

결혼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에만 열중하던 박 소장이 결혼을 결심한 건 안 박사의 명확한 논리와 사람을 사로잡는 문장력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 한다.

"남편은 결코 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는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지요. 남편이 내가 가장 예뻐 할 때가 책을 보다가 돌보기를 책 사이에 끼워 놓은 걸 볼 때라고 해요. 그만큼 내가 게으름

만, 남편은 강경했지요. 유학중에도 남편의 병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몇 번 귀국했지만, 조금 회복되면 남편은 비행기 표를 끊어 놓고 재출발 정도였지요."

그런 남편 덕분에 박 소장은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고, 케임브리지대학의 클리어홀의 평생연구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박 소장은 검은색 옷을 잘 입는다. 올 10월이면 안 박사의 3주기가 된다. 안 박사가 떠난 후 박 소장은 왜 검은색이 안 생겨 못 색깔도 자연히 검은색을 많이 입었다. 박 소장은 주위에서 흑 열녀였다고들 말하지만, 이제는 검은색이 편하다.

두 사람 사이에 자라는 아들 하나다. 얼마전 결혼을 한 아들은 철학 공부중에 있다.

"남편과 나 모두 늦게 결혼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독립을 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부모가 모두 시위때마다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라 아들만은 좀 아니길 바랐는데,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아들은 대학시절 노래패에 가입해 활동하다 경찰에 끌려가던 와중에 연골이 상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공부도 늦어지게 됐고, 나중에는 자신에게 더 맞는 인문사회과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은 논리철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요즘 박 소장은 YWCA 활동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어왔던 이희호 여사의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 사업을 돕느라 바빠졌다. 사실 박 소장은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에 '사랑의 친구들' 총재 자리를 사양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피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희호 선생이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는 달리 여성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가만 보니 행사에 가서 축하, 격려사나 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희호 선생이 뭔가 다른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요."

하지만 박 소장이 무엇보다 남은 여생 하고 싶은 일은 환경운동이다.

"남편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구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환경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연구하고 싶다는 게 내 바람입니다." (이김정희 기자)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기 바랬어요."

남편 안병무 박사의 숨은 외조

박 소장이 환경분야에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데에는 남편 안 박사의 외조가 컸다.

안 병무 박사는 10년 동안 심근경색증으로 고생하면서 자신이 없었을 때 집안식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했다. 박 소장이 앞으로도 환경 쪽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1년 반 동안 영국 유학을 적극 권유했고, 자신을 간병했던 조카를 대학원에 진학시키기도 했다.

"유학을 보내고서도 1주일만에 두세 번씩 내 공부를 체크할 정도였어요. 아픈 남편을 두고 유학을 떠난다는 건 시기적절이나 남들에게 나쁘게 비쳤을지 모르지

박영숙 소장 약력

-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63년~69년 한국YWCA연합회 총무.
- 1970~7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1985년~86년 아시아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 1987년 평화민주당 부총재, 88년 총재권한 대행.
- 1988년~92년 제13대 국회의원.
-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올해의 여성상 수상,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1993년~94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국제환경정책연구.
- 1995년~97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 98년 여성발전유공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